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방산전시회에서 GA-ASI와 단거리 이착륙(Short Take-Off and Landing, STOL) 무인기 'Gray Eagle-STOL(GE-STOL)'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 무인기 시장 본격 진출

美 육군협회 방산 전시회

GA-ASI와 무인기 공동개발
한미 업체간 방산협력 본격화
손재일 대표 “무인항공기업 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무인기 전문기업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ASI, 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 Inc.)'과 손잡고 글로벌 무인기 사업 진출에 나선다. 한미동맹을 넘어선 한미 업체간 방산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방산전시회에서 GA-ASI와 단거리 이착륙(Short Take-Off and Landing, STOL) 무인기 'Gray Eagle-STOL(GE-STOL)'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식에는 김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 데이비드 알렉산더 G

A-ASI 사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GE-STOL 시연기 1대를 개발해 오는 2027년 초도 비행을 진행하고 생산, 마케팅 등에서 협력해 2028년 구매국에 대한 첫 인도를 진행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과 랜딩기어, 연료 계통 등을, 한화시스템은 항공전자장비, 임무 장비들을 공급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GE-STOL 기체를 조립 및 생산을 위해 국내 생산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3000억원 포함 총 7500억원을 무인기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계획의 일환이다.

GE-STOL은 기존 그레이이글에 단거리 이착륙 기능을 추가한 버전이다. 동급 무인기들이 보통 1km 이상의 활주로를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약 100m 활주로만 확보해도 이착륙이 가능해 갑판이 짧은 함상, 야지, 해변, 주차장 같은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하다. 지난해 11

월에는 일반적인 항공모함보다 규모가 작은 우리 해군의 상륙함인 독도함 갑판에서 이륙 테스트를 거친 바 있다. 헬파이어 미사일 16발을 탑재할 수 있고, 대 무인기 작전, 전자전, 대 잠수함전을 수행할 수 있다.

파트너사인 GA-ASI는 향후 10년간 15조원 규모에 달하는 GE-STOL에 대한 구매국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일본, 호주 등이 GA-ASI사의 무인기를 운용 중이다. 주한미군도 그레이이글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어 우리 군이 도입할 경우 양측 연합작전에 기여할 수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GE-STOL을 공동생산함으로써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화는 전투기 엔진, 레이더, 항공전자 장비에 이르는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종합 무인항공기업으로 도약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중기부, 벤처·스타트업 등 AX 지원 확대

과기부·산업부 업무협약 체결
한성숙 장관 “새로운 성장 기회 마련”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을 잡았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중기부, 과기부, 산업부는 ‘산업 전반의 성공적 AI 전환(AX)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처간 역량을 합쳐 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산업 현장의 AX 확산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배경훈 부총리겸 과기부 장관은 “AI 모델을 잘 만든다고 해서, 인프라만 잘 갖췄다고 해서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 AX는 AI 모델만 잘 만든다고 작동하는 게 아니다.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기술



(왼쪽부터)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산업 전반의 AX 정책협력 MoU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내재화 ▲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사업화 및 현장 맞춤형 AX 기술개발 지원 ▲지역 핵심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지원 ▲AI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 등을 함께한다.

아울러 AX 핵심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부처간 통합적 협력 구조를 구축해 지역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여기서 AX를 해내지 못하면 우리 산업이 나락으로 떨어

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의식이 크다”며 “정책 하는 부총리와 산업부, 중기부장관 모두 기업에 있었던 만큼 기존 관료와 다른 입장에서 환상의 팀을 이뤄 대한민국 산업이 점프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3개 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협약식이 AI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중소·소상공인들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화오션, 차세대 전략 수상함 공개

“K-해양방산 대표상품 만들 것”

한화오션이 차세대 전략 수상함을 전격 공개했다.

한화오션은 14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서일준 국회의원,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등 국내외 관계자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함정 기술과 전망을 교류하는 ‘제3회 차세대 스마트 함정 기술 연구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현장에서 어성철 특수선사업부장(사장)이 신규 플랫폼의 개발 의미와 대안을 제시했고 ‘미래함정 발전 방향’, ‘성능 향상 방안’, ‘기술 트렌드’ 등 발표가 이어졌다.

‘차세대 전략 수상함’ 공개와 설명을 맡은 어 사장은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와 해양 패권 경쟁 심화에 대비하려면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한화오션이 이번에 공개한 함정은 해상·공중·우주·사이버로 확장되는 다중영역전에 대응하도록 전투성능·생존성·운용 효율성·임무 유연성을 높인 설계가 특징이다.

외형은 파랑관통형 선수와 텀블홈(Tumblehome) 선체를 적용해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했다. 선체는 콤팩트하지만 화력은 극대화해 소수 승조원으로 장기 생존이 가능하도록 했고, 탄도미사일·드론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화오션이 공개한 ‘차세대 전략 수상함’의 항해 상상도.

/한화오션

다층 방어체계와 자동화·AI 기반 전투 네트워크를 통해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구체 사양으로는 다수·다종의 무장을 갖춘 전투성능, 스텔스 설계 및 기가급 초고강도강을 사용한 충격 강화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의사결정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스마트 함교, 승조원의 쾌적한 승선생활을 위한 인간공학 설계, 다수·다종의 무인체계 탑재를 위한 미션 베이(Mission Bay) 등을 제시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차세대 전략 수상함’을 기본으로 한 플랫폼을 개발, 앞으로 20~30년 이상대해민국 해군의 최전선에서 복합적 위협에 대응하고 K-해양방산의 대표상품이 될 수 있는 수상함으로 완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현대L&C, 직영 전시장 ‘스튜디오 H’ 오픈

원스톱 건자재 솔루션 공간 조성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L&C가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직영 전시장 ‘스튜디오 H(Studio H)’를 열었다.

15일 현대L&C에 따르면 스튜디오 H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총 5개 층 규모로 이뤄져 있으며, 전시 공간 곳곳에 현대L&C의 자재가 적용돼 방문객이 자재의 질감·내구성·시공감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게 특징이다.

전시장 지하 1층에는 현대L&C의 인테리어필름·바닥재·벽지 등 200여 종의 건자재 샘플을 전시하고, 조명과 조도를 다양하게 구성한 라이팅 존(Lighting Zone)’을 마련해 같은 자재여도 빛의 조건에 따라 색깔과 질감이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1층 로비에는 인조대리석 ‘하넥스’로 곡선 무늬의 벽면을 구현하고 현대L&C의 프리미엄 강화 천연석 ‘칸스톤’을 종류별로 전시해 갤러리 같은 환경을 조성했다.

스튜디오 H의 2층부터 4층까지의 공간에서는 현대L&C의 프리미엄 창호 ‘레하우스’를 비롯해 현대L&C의 중문·벽장재·시스템 선반 등을 이용한 주방·욕실·드레스룸 인테리어를 선보인다.

현대L&C 관계자는 “스튜디오 H는 다양한 자재의 비교·체험뿐 아니라 프로젝트 협의 및 네트워킹까지 한 자리에서 가능한 원스톱 건자재 솔루션 공간”이라며 “이를 통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인테리어 전문가를 위한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해 최신 자재 동향과 디자인 인사이트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한솔로지스틱스, AEO ‘A등급’ 재인증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2030년까지 A등급 자격 유지

한솔로지스틱스가 관세청 주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갱신 심사에서 ‘A등급’ 재인증을 받았다.

15일 한솔로지스틱스에 따르면 AEO 인증은 무역안전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관세법령에서 정한 보안 표준에 따라 ▲법규 준수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약 60~80여 개 항

목을 종합심사해 우수업체로 공인한다.

특히, AEO 인증 기업은 신속 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글로벌 거래선 확보와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솔로지스틱스는 지난 2012년 화물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er) 부문에서 최초로 AEO 인증을 최초 취득한 뒤, 2015년과 2020년 2차례 갱신을 거쳐 올해 세번째 갱신에 성공했다. 이번 인증으로 2030년까지 AEO A등급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김승호 기자